

『삼국사기』 김유신조 <구토지설>의 讀法과 脈絡

정 충 권*

차 례

- | | |
|---------------------------|-----------------------|
| I. 머리말 | III. 맥락에 따른 <구토지설> 독법 |
| II.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 <구토지설> | IV. 맥락 읽기와 고전문학교육 |
|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고는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는 맥락을 통한 재구가 특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삼국사기』 김유신조 소재 <구토지설>을 읽어 보고 그것을 통해 고전문학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맥락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는, 상황 맥락에 초점을 맞춘 읽기, 역사적 맥락 하의 읽기,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둔 비평적 읽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독법으로 <구토지설>을 읽어 본 결과, 각각 우언을 통한 화자의 특정 의도 전달, 고구려의 입장과 신라 신귀족층 관점이 담긴 정치외교적 담론, 당시 삼국 간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 등의 기능 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법들은

* 충북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그것들 각각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순차적 단계로서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주제어 : 삼국사기, 구토지설, 김유신, 김춘추, 맥락, 고전문학교육

I. 머리말

한문이나 고어 표기 문제를 번역이나 현대역을 통해 어느 정도 극복한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우리가 고전문학 텍스트를 읽을 때 여전히 곤혹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해당 텍스트와 관련된 맥락¹⁾, 곧 화자(작자), 청자(독자) 및 소통 관련 정보가 거의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형태로 전해지지는 않기 때문일 것이다. 거기에서 텍스트 생성 및 수용 저변에 작용했을 사회, 문화적 맥락도 현대인의 삶과는 거리가 있으므로 그 낯선 느낌을 쉽게 불식시키기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맥락을 소거한 채 텍스트를 읽어낼 수는 없다. 애당초 그러한 문학 텍스트 읽기는 성립할 수 없거니와, 작품 자체의 구조에 주목하는 구조주의적 관점조차도 최소한의 해석 맥락은 설정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 텍스트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 맥락을

1)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대교출판, 1999, 231-232쪽)에 의하면 맥락이란 발화의 표현과 해석에 관여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어적·물리적·사회적·문화적 요소로서, 언어적 맥락, 상황적 맥락, 사회적, 문화적 맥락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맥락이란 담화나 텍스트 해석에 관여하는 주요 정보이자 요소인 것이다. 그외에 국어교육 혹은 문학교육 관련 맥락에 대한 최근 논의는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 선주원, 「사회·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학교육의 지향」,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등 참조.

적절히 재구함으로써 곤혹스러움과 낯섬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두고, 고전산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해당 텍스트에 적절한 맥락을 부여하면서 읽어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한 후, 그러한 층위적 읽기 학습이 고전산문 읽기 능력 향상에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문학교육적 제언에 이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 텍스트로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에 들어 있는 <구토지설>을 택하였다. 寓話는 텍스트와 맥락의 관계를 여타 장르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분명히 파악할 수 있으며, 화자의 의도나 시대상 등 변인에 따른, 텍스트와 맥락 관련 사항도 더 가시적으로 추적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특히 <구토지설>은, 선도해라는 화자와 김춘추라는 청자가 등장하므로 상황 맥락이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삼국이 서로 주도권을 다투던 당대 역사적 배경과 이야기의 수용자이자 편찬자의 의식 역시 맥락 변인으로 고려할 수 있으므로, 맥락 관련 읽기 논의에 적절한 텍스트라 생각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먼저 서사적 층위에 따른 편차를 고려하여 <구토지설>을 대상으로 맥락에 따른 읽기들을 시도한 후 이러한 읽기 학습이 지닌 문학교육적 의의를 부연해 보기로 한다.

Ⅱ.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 <구토지설>

<龜兔之說>은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에 실려 있다. 전후 맥락 정보도 중요하다고 보아 번다하지만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善德大王 十一年 壬寅에, 百濟가 大梁州를 함락하였을 때, 春秋公의 딸 古陀炤娘이 남편 品釋을 따라 죽었다. 春秋가 이를 恨하여, 高句麗에 請兵하여 百濟에 대한 원한을 갚으려 하니, 王이 허락하였다. (春秋가) 장차 떠나려 할 때 庾信에게 『나는 公과 一身同體로 나라의 股

肱이 되었다. 지금 내가 만일 저 곳에 들어가害를 당한다면, 公은 무심할 것인가?』하니, 庾信이 『公이 만일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면 나의 말발굽이 반드시 高句麗·百濟 두 임금의 뜰을 짓밟을 것이다. 정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國人을 대할 것인가?』 하였다. 春秋가 감격하여 기뻐하며, 公과 더불어 손가락을 깨물어 피를 흘려 마시며 맹세하기를, 『내가 날짜로 헤아려 六十日이면 돌아올 것이다. 만일 이를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만나 볼 기약이 없을 것이다.』 하고 서로 작별하였다. 후에 庾信은 押梁州 軍主가 되었다. 春秋가 訓信沙干과 함께 高句麗에 사절로 가는데, 代買縣에 이르니 고을 사람 豆斯支沙干이 靑布 三百步를 주었다. (高句麗) 境內에 들어가니, 高句麗王이 太對盧 蓋金을 보내어 맞아 客館을 정해 주고 잔치를 베풀어 우대하였는데, 누가 高句麗王에 고하기를 『新羅 使者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번에 온 것이 아마도 우리의 형세를 살펴보려는 것이오니, 王은 도모하시어 後患이 없게 하소서.』 하였다. (그래서) 王은 무리한 質問으로써 그가 대답하기 어렵게 하여 욕을 보이려고 일러 말하기를, 『麻木峴과 竹嶺은 본래 우리 나라 땅이니, 우리에게 돌려주지 않으면 돌아갈 수 없다.』고 하였다. 春秋가 대답하기를 『국가의 토지는 臣子로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臣은 감히 명령을 좇을 수 없습니다.』 하였다. 王이 노하여 그를 가두고 죽이려 하여 아직 遂行치 않았는데, 春秋가 靑布 三百步를 비밀히 王이 총애하는 신하 先道解에게 주었다. (그런즉) 道解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술을 마셨다.

한창 술이 무르녹을 즈음에 (道解가) 戲語로 이르기를, 『그대도 일찌기 거북과 토끼 이야기를 들었는가? 옛날 東海 龍王의 딸이 心臟을 앓았는데 醫員의 말이, 토끼 간을 얻어 약을 지으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海中에는 토끼가 없으니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때 한 거북이 龍王에게 아뢰어 자기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하고, 陸地로 나와서 토끼를 보고 하는 말이, 바다 속에 한 섬이 있는데, 맑은 샘물과 흰 돌에, 무성한 숲, 아름다운 실과가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매와 새매가 침입하지 못하니, 네가 가기만 하면 편히 지내고 아무 근심이 없을 것이라 하고, 이어 토끼를 등에 업고 헤엄쳐 二·三里쯤 가다가, 거북이 토끼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지금 龍王의 딸이 병이 들었는데, 토끼 간이 있어야 약을 짓기 때문에, 이렇게 수고로움을 불구하고 너를 업고 오는 것이다 하였다. 토끼가 (그 말을 듣고) 아아, 나는 神明의 後裔라,

능히 五臟을 꺼내어 씻어 넣을 수 있다. (공교로이) 日前에 속이 좀 불편한 듯하여 肝을 꺼내 씻어서 잠시 바위 밑에 두었는데, 너의 甘言을 듣고 바로 왔기 때문에 간이 아직도 그 곳에 있으니, 어찌 돌아가서 간을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그렇다면,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肝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어찌 이쪽 저쪽이 다 좋은 일이 아니냐? 하니, 거북이 그 말을 믿고 도로 나가 언덕에 오르자마자 토끼는 (거북의 등에서 내려) 풀 속으로 도망치며 거북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리석기도 하다, 어찌 肝 없이 사는 자가 있을 것이라? 하니, 거북이 멍청하여 아무 말도 없이 물러갔다고 한다.』 하였다.

春秋가 그 말을 듣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 (高句麗)王에게 글월을 보내어 말하기를, 『두 嶺은 본래 大國의 땅입니다. 臣이 歸國하면 우리 王께 청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내 말을 믿지 못하신다면 저 해를 두고 맹세하겠습니다.』 하니, 王이 그제야 기뻐하였다.

春秋가 高句麗에 들어간 지 六十日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庾信은 國內에서 용감한 壯士 三千人을 뽑아 놓고 함께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위태로움을 당하여 목숨을 내놓고, 어려운 일에 몸을 돌보지 않는 것이 烈士의 뜻이라 한다. 대저 한 사람이 죽음에 나서면 百사람을 당하고, 百사람이 죽음에 나서면 千사람을 당하며, 千사람이 죽음에 나서면 萬사람을 당하는 것이니, 그러면 天下를 橫行할 수 있다. 지금 나라의 어진 宰相이 다른 나라에 잡혀 있는데, 어찌 무서워서 어려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 하였다. 이에 여러 사람들이 『만 번 죽고 한 번 사는 일에 나가더라도 감히 將軍의 命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庾信은) 드디어 王에게 청하여 떠날 期日을 정하였다. 이 때 高句麗의 첩자인 中德昌이 이 일을 그 王에게 고하게 하였다. 王은 앞서 春秋의 맹세하는 말을 들었는데, 또 諜者의 말을 듣고 보니, 감히 다시 머물러 두지 못하고 후한 禮로 대우하여 돌려보냈다. (春秋가) 國境을 벗어나자 전송하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百濟에 대한 원한을 풀려고 와서 군사를 청하였던 것인데, 大王은 허락하지 않고 도리어 土地를 구하니, 이것은 신하로서 마음대로 할 일이 아니다. 전번 大王에게 글을 보낸 것은 죽음을 면하려 한 것이다.』 하였다. (...) ²⁾

2) 善德大王十一年壬寅 百濟敗大梁州 春秋公女子古陶炤娘從夫品釋死焉 春秋恨之 欲請高句麗兵以報百濟之怨 王許之 將行 謂庾信曰 吾與公同體 爲國股肱 今我若

백제를 치기 위해 고구려로 청병 간 金春秋가, 죽을 뻔한 위기에 몰렸다가 고구려 충신 先道解가 들려준 소위 <구토지설>을 듣고 깨우친 바 있어 돌아올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실제로 김춘추와 선도해 간에 이러한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최소한 김부식의 시대 이전에 <구토지설>유형 이야기가 우리 나라에 전파되었으며³⁾ 동물 우화를 빌어 돌려 말하는 우언적 소통 방식이 이미 관습화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入彼見害 則公其無心乎 庾信曰 公若往而不還 則僕之馬跡必踐於麗濟兩王之庭 苟不如是 將何面目以見國人乎 春秋感悅 與公互噬手指 歃血以盟曰 吾計日六旬乃還 若過此不來 則無再見之期矣 遂相別 後庾信爲押梁州軍主 春秋與訓信沙干 聘高句麗 行至代買縣 縣人豆斯支沙干 贈青布三百步 既入彼境 麗王遣太對盧蓋金館之燕饗有加 或告麗王曰 新羅使者非庸人也 今來殆欲觀我形勢也 王其圖之 俾無後患 王欲橫問因其難對而辱之 謂曰 麻木峴與竹嶺本我國地 若不我還 則不得歸 春秋答曰 國家土地 非臣子所專 臣不敢聞命 王怒囚之 欲戮未果 春秋以青布三百步 密贈王之寵臣先道解 道解以饌具來相飲 酒酣 戲語曰 子亦嘗聞龜兔之說乎 昔東海龍女病心 醫言 得兔肝合藥則可療也 然海中無兔 不奈之何 有一龜白龍王言 吾能得之 遂登陸見兔 言海中有一島 清泉白石 茂林佳菓 寒暑不能到 鷹隼不能侵 爾若得至 可以安居無患 因負兔背上 游行二三里許 龜顧謂兔曰 今龍女被病 須兔肝爲藥 故不憚勞 負爾來耳 兔曰 噫 吾神明之後 能出五藏 洗而納之 日者小覺心煩 遂出肝心 洗之 暫置巖石之底 聞爾甘言徑來 肝尚在彼 何不迴歸取肝 則汝得所求 吾雖無肝 尚活 豈不兩相宜哉 龜信之而還 纔上岸 兔脫入草中 謂龜曰 愚哉汝也 豈有無肝而生者乎 龜憫默而退 春秋聞其言 喻其意 移書於王曰 二嶺本大國地分 臣歸國 請吾王還之 謂予不信 有如皦日 王酒悅焉 春秋入高句麗 過六旬未還 庾信揀得國內勇士三千人 相語曰 吾聞見危致命 臨難忘身者 烈士之志也 夫一人致死當百人 百人致死當千人 千人致死當萬人 則可以橫行天下 今國之賢相被他國之拘執 其可畏不犯難乎 於是衆人曰 雖出萬死一生之中 敢不從將軍之令乎 遂請王以定行期 時高句麗謀者浮屠德昌使告於王 王前聞春秋盟辭 又聞謀者之言 不敢復留 厚禮而歸之 及出境謂送者曰 吾欲釋憾於百濟 故來請師 大王不許之 而反求土地 此非臣所得專 嚮與大王書者 圖道死耳 (『三國史記』卷 41 列傳 金庾信條) (金富軾(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下)』, 乙酉文化社, 1983, 285-287 ; 291-292쪽).

- 3) 기원전 3, 4세기 경에 이루어진 인도의 本生 說話 중 하나가 불교의 전파와 함께 우리 나라에 전해져 이곳에 실리기에 이르렀고 조선 후기에는 <수궁가(토끼전)>의 제재가 되었음은 인권환의 연구에서(인권환, 「<토끼전> 근원설화 연구」, 『토끼전·수궁가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참조)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해결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김부식 자신이 이 대목에 <구토지설>을 첨가한 것인가 아니면 김부식이 김유신전을 지을 때 참조한 텍스트에 <구토지설>이 원래 있었던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부식이 남긴 두 건의 기록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위 인용 부분에 이어 김부식이 달아놓은 “이것은 本紀 中 眞平王十二年(실은 新羅本紀 善德王 十一年)條에 써어 있는 것과 同一한 일인데 조금 다르다. (그러나) 모두 古記에 전하여 오는 것이므로 둘 다 남겨 둔다.”⁴⁾는 구절이다. 위 사건에 관하여 김부식이 참조한 古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같은 사건을 다룬 것임에도 불구하고 小異가 있어서 하나는 신라본기에 다른 하나는 김유신조에 그대로 남겼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구토지설>은 한 쪽의 古記에는 있었다는 뜻이 되며, 김부식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 된다. 하지만 만약 한 쪽에만 <구토지설>이 있었다면 이러한 차이는 小異가 아닌 大異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그렇게만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차라리 <구토지설>은 두 古記 모두에 있었을 가능성마저 있다.

다른 하나는 김유신조의 뒷부분에서 언급한 “庾信의 玄孫으로 新羅의 執事郎인 長淸이 (庾信의) 行錄 十卷을 지어 세상에 행하였는데 (거기에는) 만들어 넣은 말(醞辭)이 자못 많으므로 더러 刪落하고 그 중에서 기록할 만한 것을 취하여 傳을 삼는다.”⁵⁾는 구절이다. 아마 앞서 언급한 古記들 중 하나가 이 行錄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전하지 않아 분명치는 않으나 김부식이 김유신전을 찬술하면서 가장 많이 참조한 텍스트였던 것 같다.⁶⁾ 행록은 私的 편찬물이었을 것이므로 만약 <구토지설>이

4) 이병도의 역주 부분까지 인용한 것이다. “此與本言(言, 當作書) 眞平王十二年(眞平王十二年, 亦當作善德王十一年(見本紀)所書, 一事而小異, 以皆古記所傳, 故兩存之.”

5) “庾信玄孫 新羅執事部長淸作行錄十卷 行於世 頗多醞辭 故刪落之 取其可書者爲之傳”.

6) 김부식의 김유신전과 行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안영훈,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2004, 28-35쪽의 논의가 자세하다.

기존 古記에 실렸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곳에 실렸을 가능성이 높다. 김유신의 후손으로서 김유신을 추앙하는 데 <구토지설>이 유용하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구토지설>은 그 자체로는 흥미로우면서 독자적인 작품이지만 김춘추의 사적과 관련된 것이어서 김유신전의 전후 문맥상 군더더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김부식은 이 부분 역시 刪落했어야 했다. <구토지설>이 행록에 실려 있었음을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이 그대로 가져 왔다면 이는 행록 찬술자의 의도에 동조하는 김부식 나름대로의 의식에 말미암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구토지설>이 김유신전에 놓이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세 가지 추측이 가능하다. 첫째, 김부식이 참조한 두 종의 古記 모두에 <구토지설>이 실려 있었는데 김부식이 김유신전에서 활용하는 것이 더 의미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 둘째, 김부식이 참조한 古記 중 한 쪽에만 <구토지설>이 실려 있었는데 이를 큰 차이로 여기지 않았고 김춘추의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찬술자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그대로 김유신전으로 옮겼을 가능성, 셋째, 김부식이 참조한 古記에는 없던 것인데 구비설화나 여타 문헌을 참조하여 이곳에 직접 끼워넣었을 가능성 등이 그것들이다.⁷⁾ 이 중 첫째와 셋째의 경우 김부식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뜻하며 둘째의 경우에도 기존 찬술자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김부식 나름대로의 의식이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토지설>을 김유신과 관련하여 상상하고 사유한 주체로서 원 텍스트의 찬술자와 더불어 김부식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7) 필자는 이 글을 한국문학회(2009년 6월 27일, 부경대학교 종합강의동)에서 발표한 바 있다. 그때의 토론자 정준식교수 및 이현홍교수의 질의에 감사드리며 그에 대한 답변들을 여기 반영하였다.

Ⅲ. 맥락에 따른 <구토지설> 독법

위 <구토지설>이 우의하는 바는, 그 상황적 맥락만을 놓고 보면 명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애초에 우화란 그것을 끌어들이는 화자의 의도에 따라 또다른 맥락이 부여될 수 있으며, 반대로 우화 고유의 서사가 화자의 맥락 부여에 대해 저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 인용 부분만으로는 맥락 정보가 부족하여 <구토지설>의 역사적 맥락까지를 명확히 파악해내기가 어렵다. 게다가 “글읽기란 어떤 맥락을 통해 텍스트를 해석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⁸⁾이라 한다면, 위 <구토지설>의 맥락은 얼마든지 새롭게 재구될 여지도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 그 서사 층위도 달리 설정되며 <구토지설>이 함의하는 바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는 맥락을 어떻게 재구하는가 하는 데 따라 위 인용된 부분의 독법도 달라질 수 있으며 그와 함께 <구토지설>의 함의도 달라질 수 있음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구토지설>을 상황 맥락에 초점을 맞추어 읽을 수 있다. 일단, 선도해가 문면에 있는 것처럼 그저 戲語로만 <구토지설>을 들려 주었을 리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춘추가 자신의 이야기에서 암시받기를 의도했다고 보는 것이 상황 맥락상 합당하다. 다만 선도해가 김춘추측에 호의적이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어디까지나 고구려의 신하였던 만큼 그 방법을 직접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화를 들려 준 것은 의사 소통상의 제약 요건을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던 것이다.

<구토지설>은 거북의 유혹에 빠져, 죽을뻔한 위기에 처했다가 살아나온 토끼의 지혜와, 다 잡았다가 토끼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놓쳐버린 거북의 우둔함이 대비되는 이야기이다. 상황 맥락상 선도해는 이 중 토끼의 지혜에 비중을 두었다. 그는 김춘추에게 토끼처럼 하라고 한 것인

8) 이재기, 앞의 글, 117쪽.

셈이다. 과연 김춘추는 그 숨은 뜻을 깨닫고 고구려 왕을 속여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데 성공한다.

그렇다면 우화 속 토끼는 김춘추에 대응되며, 토끼의 간은 마목현, 죽령에 대응된다. 그리고 고구려왕은, 마목현과 죽령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토지설> 속 용왕에 대응되는 인물이라 볼 수 있다. 굳이 거북에 대응되는 인물을 찾고자 한다면 아마 김춘추가 고구려의 형세를 살피러 왔을 것이라고 고구려왕에게 일러바친 고변자가 될 것이다.⁹⁾

이때의 김춘추는 백제군에 의해 딸과 사위를 함께 잃었으며 그의 조국 신라도 大耶城을 백제에게 빼앗긴 상황이었다. 복수심에 불타 앞뒤 가리지 않고 그가 고구려로 향한 것은, <구토지설>에서 海中의 一島가 “맑은 샘물과 흰 돌에, 무성한 숲, 아름다운 실과가 있으며, 추위와 더위도 없고, 매와 새매가 침입하지 못하는(清泉白石 茂林佳菓 寒暑不能到 鷹隼不能侵)” 곳이라는 말을 듣고 서슴지 않고 토끼가 용궁행을 결정한 것과 상통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 김춘추는 죽음을 각오하고 간 것이었던 반면, 토끼는 더 나은 삶을 위해 간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결국 그들은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에서 서로 다르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절묘하게 포착하고 <구토지설>을 떠올려 김춘추에게 들려 준 선도해는, 그러므로 뛰어난 화자이자 작자이다. 김춘추가 선도해의 숨은 뜻을 알아채어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선도해에게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 그는 상황에 적절한 의사 소통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춘추는 탈출에 성공했으며 <구토지설>로 인해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상황 하에서의, 화자와 청자인 선도해와 김춘추 간의 의사 소통 행위로서 <구토지설>의 상황 맥락을 읽어낼 수 있

9) 거북을 고변자에 대응시키는 경우는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월인, 2000, 124-127쪽 참조.

다. 그와 함께 <구토지설> 읽기를 위한 하나의 독법가 마련된다. <구토지설>은 대개의 경우 이렇게 읽히는 것으로 보인다.

<구토지설> 맥락 읽기의 또다른 한 방법은 당대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읽기이다. 사실, <구토지설>의 인물 관계가 그 전후 상황과 완전히 맞아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김춘추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곳으로 간 반면, 토끼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용궁으로 갔다. 또한 간을 얻음은 토끼의 죽음을 전제로 해야 가능한 행위인 반면, 마목현과 죽령을 얻음은 오히려 김춘추의 삶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한 외교상의 문제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점은 <구토지설>의 용왕과 달리 고구려는 그리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따라서 당대 역사적 배경과,¹⁰⁾ 사건을 재구한 원 텍스트 찬자와 김부식의 편찬 의도를 그 맥락으로 하여 <구토지설>을 다시 읽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643년 김춘추가 고구려로 청병하러 간 것은 백제 공략을 위해서였다. 당시 신라가 백제와 벌인 전쟁은 고구려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렬했었다고 한다. 553년 신라가 한강 하류의 땅을 전격적으로 탈취하고 이듬해 백제 성왕이 管山城 전투에서 전사한 후 6세기 후반에는 한 동안 소강상태였으나, 7세기에 접어들면서 양국은 격렬한 공방전을 다시 벌였다. 특히, 그 때문에 간 것이지만, 김춘추가 고구려로 가기 몇 달 전에는 백제의 침입으로 대야성이 함락됨으로써 신라 내에서는 위기 의식이 극도로 고조되었다.¹¹⁾ 누군가 나서서 뭔가를 해야 했던 상황이었다.

10) <구토지설>에서는 본생설화와 달리 용궁 세계가 설정됨으로써 정치·사회적인 풍자로 이행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한 이원수(이원수, 「<토끼전>의 형성과 후대적 변모」,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출판부, 1996, 212쪽)의 지적처럼, <구토지설>은 당대 역사를 배경으로 한 정치적 맥락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는 면모를 갖추고 있다.

11)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 연구』, 서경문화사, 1997, 71-78쪽 참조.

또한 김춘추의 고구려행에는 불안한 정치적 상황 하에서 즉위한 선덕왕(632-647재위)측 신귀족 세력이었던 김춘추와 김유신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대야성 함락은 단순히 김춘추의 딸과 사위의 목숨을 앗아간 일만은 아니었다. 김춘추 사위의 失政으로 인한 책임 소재 문제와 더불어 女主 선덕왕의 정치력에 대한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됨으로써 김춘추와 김유신을 포함한 신귀족 세력이 커다란 정치적 위기에 봉착했을 수 있다. 김춘추의 고구려행은 반대파들의 공세를 무마하고 그들 세력의 위상을 회복하려는 정치적인 목적도 있었던 것이다.¹²⁾

김춘추가 목숨을 건 고구려행을 시도한 이유는 이러한 맥락에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김춘추는 차라리 거북에 대응하는 인물이라 보아야 한다.¹³⁾ 거북이 자신의 군주를 위해 토끼의 간을 얻을 목적으로 육지행을 시도했듯, 김춘추 역시 자신의 군주를 위해, 그리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고구려 입국을 감행했기 때문이다.¹⁴⁾ 이때 용왕 딸의 병은 신라 자체의 위기 혹은 신라 내부의 반대 세력에 대응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위 김유신조에서 김춘추와 김유신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춘추가 떠나려 할 때 그들은 서로 손

12)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3, 27-28쪽 ; 박찬홍, 「김춘추·김유신 세력의 등장과 중대왕실의 성립」, 『내일을 여는 역사』 14,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21-26쪽 참조.

13) 서종문, 「『토벌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엮음), 민속원, 2001, 299-300쪽에서 김춘추의 이러한 입장을 토끼 간을 구하러 간 거북의 신세와 다름 없다고 한 바 있다.

14) <구토지설>류 이야기를 근원설화로 한 <토끼전> 이본들 중에는 별주부에 대한 연민과 동정의 정서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들도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253쪽 참조. 애초에 <구토지설>의 거북은 자신의 군주를 위해, 나아가 자기가 소속된 집단을 위해 목숨을 건 길을 떠난 것이므로 이미 <구토지설>에서부터 거북을 긍정할 만한 단서가 마련되어 있었다.

가락을 깨물며 피를 마시면서 一身同體임을 확인한 바 있었다. 그리고 김춘추가 고구려로 간 지 6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김유신은 비장한 각오로 결전을 준비하였다고 한다. 원 텍스트 찬자와 김부식은 김유신과 김춘추가 정치적 동지 이상의 결속력을 지니고 있었다는 점과 김춘추의 고구려행 및 석방 배경으로, 김유신의 존재를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다.

이 즈음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실권을 장악한 후 당나라와 신라에 대한 온건책이 강경책으로 바뀌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가 그리 좋은 것은 아니었다. 진흥왕12년(551년)에는 신라와 백제의 북진에 의해 죽령 이북의 10개 군과 한강 하류 지역을 상실한 바 있었다. 고구려는 그 후 603년부터 신라를 다시 공격하기 시작했지만, 551년 이후 신라는 고구려에 대해 적극 공세를 하기보다 이미 장악한 한강 유역 유지에 전력하면서 백제의 격렬한 침입에 대응하는 동시에 안으로 체제 정비에 의한 안정을 도모하고 있었다.¹⁵⁾ 반면, 당나라는 고구려가 당에 굴복하지 않고 있으며, 연개소문이 국왕을 시해하고 새로운 왕을 세워 정권을 장악하면서 폭압정치를 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여¹⁶⁾ 고구려 공격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당시 고구려의 입장에서는 신라보다 당이 더 위협적인 존재였다.

그러한 상황 하에서 김춘추를 맞이했던 것이다. 고구려측에서는 신라가 당과 협약할 가능성을 경계하긴 했으나 그 동안 손 잡아 왔던 백제와의 관계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필요했다. 마목현과 죽령을 요구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마 고구려측에서도 그 요구가 이루어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라가 백제와 싸우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나올 수 있었다. 선도해가 <구토지설>을 김춘추에게 들려 준 것은 적당히 거짓말을 하여 위기를

15) 이호영, 앞의 책, 66-70쪽 참조.

16) 후보돈, 앞의 글, 34-35쪽 참조.

벗어나라는 것이었다. 고구려측에서는 김춘추의 말만으로 그 땅이 고구려의 것이 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김춘추로부터 고구려왕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낼 필요는 있었던 것이다.¹⁷⁾ 그렇다면 선도해의 의도는 고구려측의 의도이기도 했다고 보아야 한다.

고구려측에서 김춘추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위 김유신조에서는 한 가지를 더 들고 있다. 바로 김춘추와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한 김유신의 위세와, 정신적으로 무장한 김유신 휘하 군의 존재가 그것이다.¹⁸⁾ 위 인용 뒷부분에서 알 수 있듯, 이 일은 첨자에 의해 고구려에 보고되고 있었다. 고구려측은, 김춘추를 돌려보내지 않거나 죽이는 일은 김유신을 격동시켜 그 간 백제를 향하던 신라의 화살을 고구려로 돌리는 결과를 낼 수 있다고 보았을 법하다. <구토지설> 기사가 실린 곳이 『삼국사기』 열전 김유신조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원 텍스트의 찬자와 김부식은 <구토지설>을, 그밖의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서도 특히 김유신의 존재를 염두에 둔 고구려측의 정치적·외교적 담론으로 파악한 것이다.

이처럼 당대 삼국의 관계를 고려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구토지설>의 함의를 풀어낼 수도 있다. 그렇게 볼 때 <구토지설>의 거북은 차라리 김춘추에 해당하며 토끼의 간은 김춘추가 청병했던 바로 그 고구려측 군사라 볼 수 있다. 결국 <구토지설>의 거북이 그러했듯 김춘추도 아무 소득 없이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설화를 김유신과 관련지은 그 누군가는 <구토지설> 이야기야말로 김유신의 존재가 신라 안팎에서 인정받고 있었음의 증거로 내세울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17) 정병현, 「『수궁가』의 구조와 언어적 성격」,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엮음), 민속원, 2001, 220쪽.

18) 김태준, 「김유신전 연구」, 『신라문학의 신연구』(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6, 155쪽 ; 임형택,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성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19-20쪽 참조.

물론 <구토지설>의 역사적 맥락을 이렇게만 설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 맥락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것을 달리 설정하느냐에 따라 <구토지설> 역시 달리 읽힐 수 있다. 여기 제시한 것은 그 중 한 가지 독법일 뿐이다. 특정 텍스트의 해석 맥락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읽기 과정을 통해 선택되는 것이기 때문이다.¹⁹⁾

그런데, <구토지설>류 텍스트는 이처럼 문면에 나타난 상황 맥락이나 관련 자료에 비추어 본 역사적 맥락 읽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맥락 부여를 통한 능동적 읽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 중 한 가지 가능한 읽기 방법은 <구토지설> 자체를, 한반도의 주도권을 놓고 당시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당대 삼국 관계의 우연, 곧 알레고리로 보는 것이다. 물론 상황 맥락상 김춘추도 선도해의 <구토지설>을 우언으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여기서는 선도해의 발화 내용이라는 텍스트내적 맥락으로부터 한 발 물러나 <구토지설> 텍스트 자체를 당대 사회에 대응시켜 해석하는 비평적 읽기를 말한다.

먼저 <구토지설>에서 동해 용녀의 병에 대해 海中 생물이 아닌 육지에 사는 토끼 간이 약이 되리라는 의원의 진단은 의미심장한 바 있다. 당시 삼국의 상황은 특정 국가의 절대 우위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한 나라의 움직임은 다른 두 나라를 가깝게 만들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기만 했다가는 다른 나라에 당할 수 있었다. 더구나 삼국의 뒤에는 수와 당이 있었다. 그러므로 해중이 아닌 육지의 토끼 간이 약이 된다는 설정은 어떤 나라든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관계를 맺어야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알레고리로 읽힐 수 있다. 만약 용녀의 병을 한 나라 내부의 문제라 본다 하더라도 그것 역시 외부에 기대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셈이다. 앞서 언급했듯 김춘추가 고구

19) 그러므로 역사적 맥락은 텍스트가 지닌 당대적 함의뿐 아니라 텍스트 생산자의 의도의 역사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곧 텍스트 수용 및 재생산의 통시적 변화까지도 역사적 맥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려행을 감행한 데에는 외부의 문제 못지 않게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이다.²⁰⁾ 연개소문이 권력을 쥐게 된 고구려나, 귀족 세력을 견제해야 했던 의자왕이 있는 백제 역시 신라와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토끼가 자라에게 한 거짓말 중 “너는 구하는 것을 얻게 되고, 나는 肝이 없어도 살 수 있으니, 어찌 양쪽이 다 좋은 일이 아니냐?”(汝得所求 吾雖無肝尙活 豈不兩相宜哉)라고 한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록 거짓이지만 토끼가 말한 양쪽에 다 좋은 일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길을 추구하는 것은 국가 간 외교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이다. 당시 삼국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슨 일이든 兩者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토끼의 거짓에 이미 내포되어 있듯, 한 쪽이 이익이 있으면 다른 쪽은 반드시 그 댓가가 있었던 것이 당시 삼국 간의 상황이었다.

여기서 거짓말은 알레고리로서 본 <구토지설>의 핵심적 사항이다. 거북의 거짓말은 용녀의 삶과 이어질 것이었던 반면, 거북의 참말은 용녀의 죽음과 이어진다. 그리고 토끼의 거짓말은 자신의 삶을 위한 행위였다. 삶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야 하며 참말은 오히려 죽음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 이것 역시 당대 삼국 간 현실이었다. 김춘추 역시 참말을 했다 죽을 뻔한 위기에 봉착했으나 거짓말을 함으로써 살아나올 수 있었다.

앞서 인용한 김유신조 중 德昌의 존재에서 알 수 있듯 당시 삼국은 치열한 첩보전도 벌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점 역시, 서로 눈치를 보며

20) 픽션 형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한 박순교,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229-234쪽에서는 김춘추가 고구려로 간 목적으로서, 고구려와 백제의 연합 우려, 당에 대한 압박, 고구려의 내정 분석 외에 사위인 품석의 실행을 속죄하기 위함, 유신에게 시간을 벌어주어 알천보다 더 뛰어난 장군으로 만들기 위함, 일거에 여론과 무력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함 등의 사항을 들고 있다.

거북과 토끼의 관계처럼 서로 속이고 속는 치열한 외교전을 전개해야 했던 복잡한 삼국 관계의 알레고리로서 <구토지설>을 읽을 수 있는 한 단서가 된다.

이러한 독법에 따르면 <구토지설>의 토끼와 거북은 당시 삼국의 정치가들에 대응될 것이며, 토끼의 간은 국가적 차원의 이익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구토지설> 읽기는 그 나름대로의 새로운 맥락 부여에 의거한 비평적 읽기에 해당한다.

IV. 맥락 읽기와 고전문학교육

오늘날 학습자는 고전문학 작품 읽기를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은 가르치는 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텍스트의 맥락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고전문학 이해와 감상은 기존 연구성과를 그대로 전달하고 암기하게 하는 데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 학습자에게 있어 그것은 무척이나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역사적 맥락을 무시하고 구조적 관점에서 텍스트를 읽거나 학습자 개인의 경험이나 지식, 가치관에 의거한 개별적·주관적 읽기를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 게다가 텍스트 읽기에는 현장적 맥락 변인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고, 텍스트마다 다른 맥락이 설정될 수 있으므로 맥락 설정 방법을 일반화하기도 어렵다.²¹⁾

이 글에서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고전 텍스트에 맥락을 부여하는 세

21) 물론 본 논문의 한 심사자가 지적한 것처럼, 본 논의는 맥락 부여 방식의 체계화를 도모한 후 그 다른 점들에 초점을 맞춘 ‘의미의 확산성(이 용어가 무엇을 뜻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다시 말해 ‘논의의 일반화’로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작업까지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타 작품들을 함께 고려하여 그 추상화의 단계를 높이는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후속 논의로 남겨둘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가지 독법을 <구토지설> 텍스트를 예로 삼아 제시해 본 것이다. 첫번째 것이 선도해를 화자로 하고 김춘추를 청자로 한 상황 맥락 하에 읽은 것이라면, 두번째 것은 <구토지설>에 김춘추를 풀어주어야 했던 고구려의 입장과, 김춘추를 포함한 신라 신귀족 세력측 관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보고 그것을 당대 역사적 맥락 하에서 읽은 것이다. 반면 세번째 것은 <구토지설> 텍스트 자체를 당시 국가 간 관계에 대응시켜 그 나름대로의 비평적 맥락을 부여하여 읽은 것이다. 그 결과 각각, 우언을 통한 화자의 특정 의도의 전달, 역사적 맥락 하의 정치 외교적 담론, 당대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 등의 기능 내지 의미를 <구토지설>로부터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세번째 경우는 어떠한 대응 관계 하에서 텍스트가 재맥락화되는가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열려진 읽기에 해당한다. 예컨대 <구토지설>류 이야기를 토대로 하여 판소리를 거쳐 판소리계 소설로 나아간 <토끼전>에서, 위기에 처한 중세 국가를 배경으로 한 개인과 국가의 문제에 대한 알레고리를 읽을 수 있는 경우가 그러하다. 이때의 <토끼전> 읽기는 <구토지설>류의 근원설화에 <토끼전> 작자가 부여한 맥락 읽기에 대응될 것이다. 우화는 어떻게 재맥락화되는가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이다.²²⁾ 다만 여기서는 그러한 읽기 역시 고전 텍스트 맥락 읽기의 한 방법으로서의 비평적 읽기로 포괄하고자 한다.

고전 텍스트 읽기를 위한 맥락 설정 방법은 크게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본다. 고전 텍스트 읽기란 결국 이러한 맥락 읽기인 것이다. 그렇다면 특히 고전문학교육에 있어 고려해야 할 점도 바로 이러한 읽

22) 예컨대 <두더지의 혼인> 이야기를 통해 유몽인은 권력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한 일환으로 왕실과 혼인맺기에 골몰하던 당시 세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면, 같은 이야기를 『계암만록』(1884-1892)에서는 19세기 후반 사대부 계층이나 부호층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던 사치스런 혼인 풍조를 풍자하는 데 활용한 것을 들 수 있겠다(정출현, 앞의 글, 13-14쪽). <두더지의 혼인> 이야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맥락 분석은 강영순, 「야담의 우언적 소통 고찰」,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한국우언문학회 편), 집문당, 2004 참조.

기 학습일 것이다. 본고에서 굳이 ‘맥락’을 주요 개념으로 내세운 것도 실은, 7차 개정 국어교육과정 내용 요소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중요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을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으로 나누고, 상황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의 주체,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며, 사회·문화적 맥락은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활동에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맥락 개념을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그대로 대응시키기는 어렵다. 맥락을 그 성격에 따라 뚜렷이 구분짓기는 어려우며 텍스트의 역사성도 아울러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문학 텍스트 읽기 자체가 상황 맥락과 사회 문화적 맥락을 구분하기 어렵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고전문학 텍스트의 경우는 특히 그러하다. 그리고 고전문학 텍스트의 경우 사회 문화적 맥락이란 넓게 보아 한국사, 좁게 보면 정치사, 사회사, 문화사, 민속 등으로 하위 분류되는 일종의 지식이 된다. 따라서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서는 차라리 그 모두를 ‘역사적 맥락’으로 포괄하는 것이 더 적실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본다면 역사적 맥락이 지닌 함의가 너무 넓어져 그 준거점을 설정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또한 학습의 대상으로 삼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상황 맥락이라는 개념을 가져 오되 그것을 작자와 독자의 의사소통 정도로 한정하고, 텍스트를 당대 사회에 대응시켜 이해하거나 당시 문학 관습 하에 작품의 위상을 규정하는 일은 역사적 맥락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때 학습자는 그 역사적 맥락에 대한 배경 지식을 텍스트 읽기와 병행하여 함께 학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상황 맥락 읽기는 그것 자체로도 읽기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또한 역사적 맥락을 통해 재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구토지설>을 대상으로 하여 화자-작자 선도해와 청자-독자 김춘추의 의사소

통 행위로 읽은 것은, 역사적 맥락, 다시 말해 당시 삼국의 관계 및 찬술자가 부여한 맥락을 통해 다시 읽을 때 더 풍부하게 읽을 수 있었음도 이와 관련된다 하겠다. 물론 특정 작품에 어떤 역사적 맥락을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독법이 달라질 수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오늘날 학습자의 사회 인식, 문화적 소양, 가치, 이념 등, 곧 사회 문화적 맥락을 효율적으로 작동시키면서 고전 작품을 읽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역사적 맥락을 중심으로 읽는다 하더라도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맥락이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텍스트 읽기에 있어 당대 역사적 맥락의 비중을 줄이고,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중요시한 읽기 방법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는 학습자의 주체적 읽기를 중요시하는 비평적 읽기가 될 것이다. 그 실체는, 그 맥락을 어떻게 선택하는가 하는 데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일 것이다. 앞서 <구토지설>에 대한 세번째 읽기 방법은 그 중 특히 텍스트 간 맥락을 따져 읽으면서 오늘날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작동시킨 한 예가 되겠다. 따라서 고전 텍스트 이해를 위해서는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외에 역사적 맥락을 별도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상황 맥락과 역사적 맥락, 역사적 맥락과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 간의 연계성이 수용자의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의식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있어 맥락 파악의 이 세 가지 방법은 그것들 각각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그것들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감상, 이해할 때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세 독법을 무조건적으로 일반화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중요한 것은 오늘날 학습자가 텍스트에 맥락을 부여하는 과정 자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데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만약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어떤 독법이든 가능하다. 다만 한 가지 유념해야 할 점은, 고전 텍스트 읽기에서는 맥락 요소로서 주관적 경험보다는 지식에 더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오늘날 수용자가 처한 사회적·문화적 상황과 그가 지닌 이념, 가치를 텍스트 읽기의 맥락으로 삼기 이전에 그것이 유용한

지 되돌아보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고전 텍스트 읽기를 위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지닌 사회적 문화적 맥락 지식을 상대화하고 그것을 역사적 맥락과 상호 조응시키면서 끊임없이 되새기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V. 맺음말

본고는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는 맥락을 통한 재구가 특히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삼국사기』 김유신조 소재 <구토지설>을 읽어 보고 그것을 통해 고전문학교육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맥락을 설정하는 방식에 따라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는, 상황 맥락에 초점을 맞춘 읽기, 역사적 맥락 하의 읽기,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염두에 둔 비평적 읽기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독법으로 <구토지설>을 읽어 본 결과, 각각 우연을 통한 화자의 특정 의도 전달, 고구려의 입장과 신라 신귀족측 관점이 담긴 정치외교적 담론, 당시 삼국 간의 관계에 대한 알레고리 등의 기능 또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독법은 그것들 각각만으로도 의의가 있지만 순차적 단계로서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구토지설> 읽기 결과를 통해 볼 때, 맥락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독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는 학습자들의 맥락 학습이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7차 개정 국어교육 과정에서 내용 요소 중 하나로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여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맥락을 그 성격에 따라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적 맥락 등 두 가지로만 나누어 설정한 것은 ‘고전문학’ 텍스트 읽기에 있어서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본고에서는 맥락을 세 가지로 크게 범주화하기만 하고 그것 ‘자체’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는 하지 못했다. 아마 현장에서의 고전 텍스트 읽기에는 훨씬 더 다양한 맥락 변인들이 존재할 것이다. 이 점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결국에는 학습자의 주체적인 맥락 읽기는 소홀히 하는 결과가 되었다. 향후 고전 작품 읽기에 있어, 당대 역사적 맥락과 학습자의 사회 인식, 문화적 소양, 가치, 이념 등 맥락을 관련지으면서 학습자가 맥락을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교수 학습 방법을 구안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金富軾(李丙燾 譯註), 『三國史記(上下)』, 乙酉文化社, 1983.
- 강영순, 「야담의 우언적 소통 고찰」,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한국우언문학회 편), 집문당, 2004, 141-170쪽.
- 김태준, 「김유신전 연구」, 『신라문학의 신연구』(신라문화제 학술발표논문집 7),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 1986, 143-164쪽.
- 박순교, 『김춘추 외교의 승부사』, 푸른역사, 2006.
- 박찬홍, 「김춘추·김유신 세력의 등장과 중대왕실의 성립」, 『내일을 여는 역사』 14, 내일을 여는 역사, 2003, 20-34쪽.
-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편,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1999, 231-232쪽.
- 서종문, 「『토별가』에 나타난 신재효의 현실인식」,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엮음), 민속원, 2001, 293-321쪽.
- 선주원, 「사회·문화 맥락을 반영한 문학교육의 지향」, 『문학교육학』 22,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153-180쪽.
- 안영훈, 『김유신전 연구』, 민속원, 2004.
- 윤승준, 『우언의 재미와 교훈』, 월인, 2000.
- 이원수, 「<토끼전>의 형성과 후대적 변모」, 『고전소설 작품세계의 실상』, 경남대출판부, 1996, 206-231쪽.
- 이재기, 「맥락 중심 문식성 교육 방법론 고찰」, 『청람어문교육』 34, 청람어문교육학회, 2006, 99-128쪽.
- 이호영, 『신라삼국통합과 여·제 패망원인 연구』, 서경문화사, 1997.
- 인권환, 「<토끼전> 근원설화 연구」, 『토끼전·수궁가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01, 3-40쪽.
- 임형택, 「『삼국사기·열전』의 문학적성 - <김유신전>을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12, 한국한문학회, 1989, 9-29쪽.

- 정병현, 「『수궁가』의 구조와 언어적 성격」, 『수궁가 연구』(최동현·김기형 엮음), 민속원, 2001, 209-228쪽.
- 정출현, 「조선후기 우화소설의 사회적 성격」,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1992.
- 주보돈, 「김춘추의 외교활동과 신라내정」, 『한국학논집』 20,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1993, 21-52쪽.
- 최인자, 「문학 독서의 사회·문화적 모델과 ‘맥락’ 중심 문학교육의 원리」, 『문학교육학』 25,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427-449쪽.

<Abstract>

The Way of Reading and Contexts of
〈*Gutojiseol*(The Tale about a Rabbit and a
Turtle)〉 in the *Kim Yu-shin* Section of
『*Samguksagi*』

Jeong, Choong-Kwon

This paper aimed to earn educational implications in terms of classical literature by reading <*Gutojiseol*> in the *Kim Yu-shin* section of 『*Samguksagi*』, from a perspective that the reading of a classical literature text is specifically important in reorganization. The reading of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 was assumed to be largely classified into reading by focusing on situational context, reading under historical context, and today's critical reading in light of socio-cultural context, according to types of establishing contexts. As a result of reading <*Gutojiseol*> with these reading methods, this paper was able to discover functions or meanings such as the delivery of specific intention of a speaker, political, diplomatic discourse in the view of *Goguryeo* an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w aristocrat of *Shilla*, and allegory about the relationship among three countries. Also, these reading methods were deemed to be applied to the reading of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 as a sequential step although each of them may have its own meaning.

From the results of such a reading of <*Gutojiseol*>, the reading method may be different according to how context would be

established; thus, it was found that learners' learning of contex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reading a classical literature text. Accordingly, it is believed appropriate to value a context category by newly establishing this category as one of the contents components in the 7th revised Korean language curriculum. But still, the establishment of contexts by dividing them only into two: a situational context and a socio-cultural context, may not be adequate in reading a classical literature text.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reconsider this aspect.

Key Words : *Samguksagi*, *Gutojiseol*, *Kim Yu-shin*, *Kim Chun-chu*,
context, classical literature education

■ 논문접수 : 2009년 7월 4일

■ 심사완료 : 2009년 8월 5일

■ 게재확정 : 2009년 8월 10일